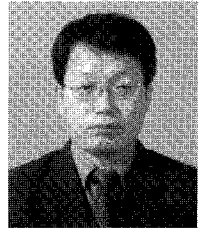


송아지선정과

사양관리의 요점 (상)

정 용 호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 심사팀장

머리말

화우는 역용우에서 육용우로 변화되어 산육능력을 중시한 육종개량으로 되었으며 최근에는 육종가를 활용한 선발이 실시되고 있다.

1997년 9월에 일본 이와테현에서 개최된 제7회 전국화우능력공진회는 “육종가와 투지로 발전시키는 화우생산”을 테마로 갖고 현재 직면한 개량과제인 산육능력을 “육종가”로 평가하고 산육능력이 보증된 것 중에서 선발된 소들로 경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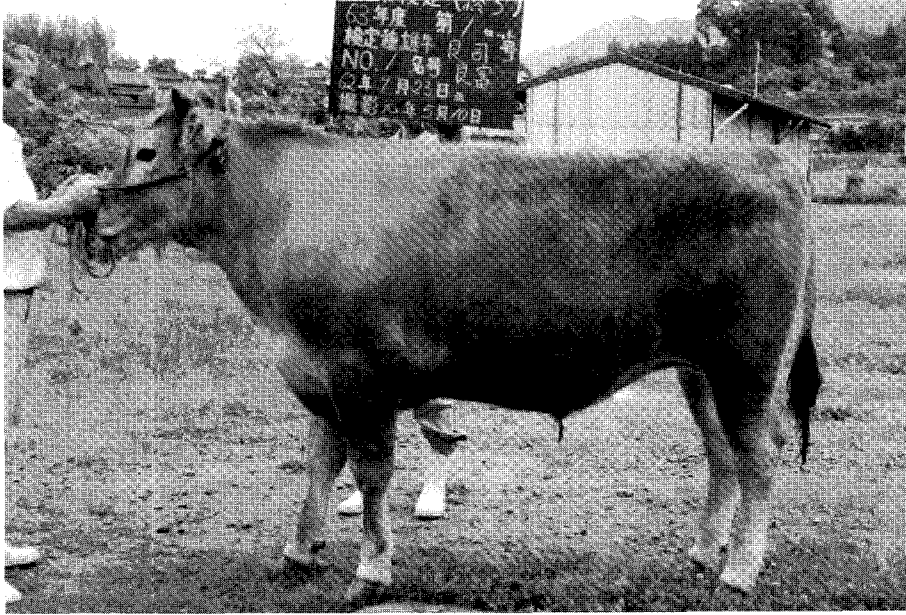
이와같은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금후의 화우번식경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 까? 를 분시험장에서 시험연구성과를 근거로 유의점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1. 번식용송아지 도입과 유의점

(1) 송아지 보는 방법과 선발방법

송아지에는 송아지의 특성이 있고 성우가 되었을 경우 어떠한 소로 되는가? 등의 기초적인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틀리지 않도록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아지선정과 사양관리의 유의점에 대하여 일본 돗토리현의 축산시험장 번식과장인 쿠리하라(栗原昭廣)씨가 연구한 것을 1·2부로 나누어 게재하고자 합니다.



① 혈통 및 계통에 의한 선발방법

혈통 및 계통이 좋은 소를 사전에 경매명부(송아지시장에서의 구입시)에 의해 조사하여 파악하여 둔다.

- ㉠ 혈통·계통의 특색에 주의 할 것
- ㉡ 산육형질의 추정육종가(각현 독자적으로 다르게 대응)을 활용할 것

② 체형에 의한 선발방법

장래에 크게 되고 사육하기 쉬운 소를 선발한다.

- ㉢ 골격이 큰 것을 선발
- ㉣ 등과 허리가 강하고 등선이 곧게 뻗어 있을 것
- ㉤ 체고보다 십자부고가 높을 것
- ㉥ 성우의 이음매보다도 장각으로 보이는 것을 선발
- ㉦ 송아지나름의 체폭과 깊이가 풍부할 것

㉧ 갈비의 상태가 좋고 배의 용량이 풍부할 것

- ㉨ 피부는 탄력이 있고 여유가 충분할 것
- ㉩ 처지지 않은 배일 것
- ㉪ 어깨부착이 좋을 것
- ㉫ 비절이 높고 이음매가 짧지 않을 것
- ㉬ 비절이 확실하고 뒷다리가 정확하게 서있을 것
- ㉭ 이음매가 단단하고 발굽이 클 것
- ㉮ 입과 코가 크고, 턱은 야무질 것
- ㉯ 온순한 것

(2) 도입시의 관리

① 약썩의 섭취

㉠ 5중혼합 약썩

소전염성비관지염바이러스, 소바이러스성설사-점막병바이러스, 파라인플랜자3형바이러스, 소RS바이러스, 소아데노바이러스

㉠ 호혈액성세균, 소모나스왁편

② 간질구충약 · 비타민제의 투여

③ 제각

④ 이표, 코뚜레 장착

(3) 제각의 효용과 방법

① 제각의 효과

화우번식우의 군사양관리에 있어서의 제각의 효과에 관해서는 中國農試 · 京都大學 · 長崎 · 鹿兒島畜試등에서 보고되어 있듯이 사조의 공유시간의 증가, 채식의 경합이 완화되어 성적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가능케 하였다. 제각전후의 경합 · 투쟁회수의 상황을 보면 별도 그림과 같다. 제각후 곧바로 군전체의 움직임이 조용하게 되고 경합 · 투쟁회수가 제각후 46일로 제각전의 1/4정도로 격감되었다.

② 제각의 방법

㉠ 기구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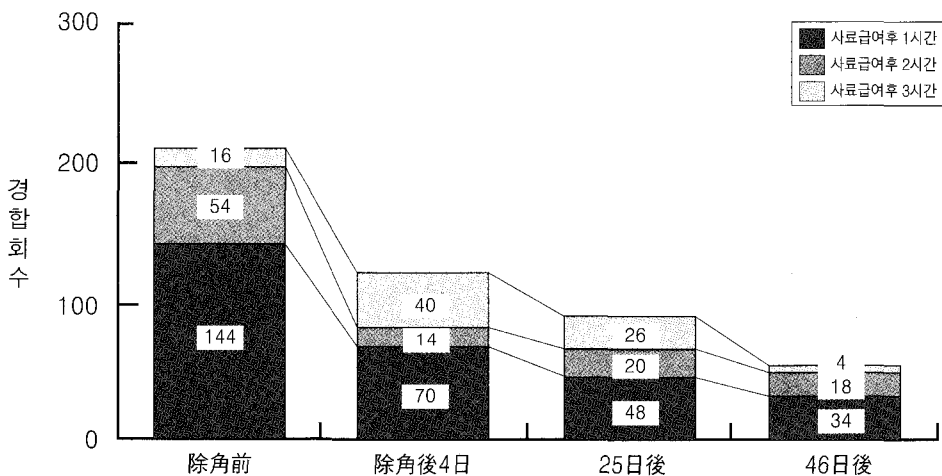
제각용 : 제각기 또는 가는톱

지혈 · 화로 : 인두 또는 칠륜 및 전기고데

㉡ 방법

머리부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보정한다. 마취는 고통을 줄이고 지혈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 시험장에서는 근육이완제인 키시라징0.05~0.1mg/kg을 근육주사를 하고 있으며 국소마취약을 10ml정도 좌우 뿔의 신경을 목표로 주입하는 방법도 있다. 뿔주의 털은 칼로 적당히 깎아 놓고 마취가 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뿔의 밑부분을 단숨에 자른다. 지혈은 소독을 겸하여 인두등으로 지지고 특히 피부와의 경계부위는 지혈하기가 어려우니 신경을 써서 지진다. 지혈이 끝나며 소독과 유해곤충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각부위에 요도액 또는 목타-르 등을 충분히 살포한다. 겨울철이외의 계절은 구더기발생의 염려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별도] 사료급여후 3시간의 경합 회수



자료 : 鹿兒島畜試(가고시마 축산 시험장) 前原氏, 1991

2. 육성우의 사양관리 유의점

(1) 육성시의 사양관리

① 사료의 급여방법

번식우는 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매년 연속하여 송아지를 생산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목초나 야초등의 조사료를 충분히 먹게 하여 사료의 이용성을 높힐 필요성이 있다.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주면 특별하게 농후사료를 급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분만전후나 젖먹이는 기간등, 특별히 영양분을 보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사료의 보조로서 농후사료를 급여한다. 인과 칼슘의 비란스가 체내에서 무너지면 골연중, 유산, 대사장해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 때문에 농후사료에는 일반적으로 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칼슘의 보급에 주의 할 필요가 있다.

② 단방 · 묶어서 사육관리

단방 또는 묶어서 사육할 경우 개체관리가 용이하고 채식경합이나 투쟁의 염려가 없다.

관리자는 정신적으로 편한편이 있지만 발정발견이나 사양관리에는 약간 불편하다.

㉠ 채광의 개선

기존의 단방사육우사의 일부는 창이 없거나 작고 높이 있는 문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우방내가 어두워서 관찰 할 수 없는 곳도 발견된다. 이같은 경우에는 각우방에 적어도 40와트 정도의 형광등을 1개씩 설치할 필요가 있다. 발정시의 행동이나 외음부의 상황과 분만시의 관찰을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다.

㉡ 우방 출입구의 개선

우사에 따라서는 사조통로와 우방의 이동이 사

조를 걸치지 않으면 앉히는 곳도 많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번식관리에 있어서 대단히 불편하고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간단히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적당한 곳에 만들 필요가 있다.

③ 군에서의 사육관리

군사육의 경우 소 1두당 우사의 건축단가를 낮추고 사료급여, 제분작업의 기계화등을 꾀하는 것이 가능하고 발정관리도 용이하지만 사료섭취시의 경합이나 투쟁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 스탠존의 필요성

도입할때에는 제각하여도 사료섭취시에는 어느 정도 경합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스탠존(혹은 연동스탠존)설치는 필요하다. 또한 스탠존에 의한 개체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인공수정, 치료등에 있어서도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제분작업

프리-스토-르우사에서는 프리-스토-르(소바닥)부분과 소 통로부분과 넓게 분리되어 있으면 제분작업은 7~10일간격으로 소 통로부분의 분뇨만을 미니로-다로 실시하고 있다.

스콕프나 포-크를 이용하여 제분작업, 깔짚교환은 중노동이므로 엉거주춤한 자세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요통의 발생원인이 되기 때문에 것에 후론토로-다등을 이용한 사양관리 할 수 있도록 기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다음호에 계속)